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Perception toward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mong seniors in health and welfare colleges

Rah-Il Hwang*

Department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일개 4년제 대학의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 총 207명의 설문조사에 대해 SPSS ver.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도와 지식 수준은 낮았으나,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대상자의 노인시설 봉사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과 함께 능동적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주제어**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식, 태도, 보건복지,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 identified the perception toward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mong seniors in health and welfare college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07 students in a local area. Data were analyzed by SPSS 22.0ver. The subjects' interest and knowledge level o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low, but the attitude was positive. Knowledge levels and attitudes related to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ere found to differ according to elderly institutional service experience. In conclusion,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curriculum and active program of volunteer activities to improve the awareness and interest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health and welfare colleges.

• **Key Words** : long term care, knowledge, attitude, health and welfare colleges,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가족 기능

및 가치체계 변화, 가족 내 여성 역할 변화 등으로 사적 영역에서 노인부양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에 노인부양부담을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입 후 수급자 확대, 가

*Corresponding Author : 황라일(hwangri@hanmail.net)

Received October 12, 2017

Accepted November 20, 2017

Revised November 9, 2017

Published November 28, 2017

족의 부양 부담 경감, 공급기관 확대 및 고용 창출 등 성과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적용 범위, 재원 조달 방식, 수가 및 서비스 제공 체계, 공급시설 및 인프라, 서비스 질 관리 등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1,2].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의 특성 상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3].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 인력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치위생사 등으로, 이들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전문적 지식으로 심신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고령에다 치매, 뇌졸중 등 건강문제로 욕창, 요실금, 낙상, 골절 위험성과 함께 배회, 수면장애, 망상, 환상 등 복잡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 인력은 일선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4]. 더욱이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업무 관련 직무만족도와 몰입 저하, 소진, 이직 등을 유발하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 인력을 확보·유지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5].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구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 인력의 근로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 인력의 수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타진공에 비해 인력 수요가 높은 보건복지계열 대학에 대한 우수 인력의 관심과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특성 상 이들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함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초고령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보건의료현장에서 노인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는 노인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그 원인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정적인 태도 그

리고 대학 내 노인 교육과정과 임상경험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6, 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잠재 인력인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이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초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8]와 잠재적 수요자인 일반 노인 대상 연구[9], 간호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등 보건복지계열 종사자 직종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0,11,12]. 그러나 보건복지를 전공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도와 관심도 등을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은 4년 대학교육을 통해 보건복지 관련 전공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 졸업 후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졸업을 앞둔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들이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떠한지를 탐색함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로 이들 보건복지계열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생에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인 대학생 중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를 조사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교육과정 개선과 인력 수급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반적 관심도를 파악한다.
- 둘째,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지식 수준 및 태도를 파악한다.
- 셋째,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식 수준과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일개 4년제 대학의 보건복지계열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해당 학과에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설문협조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설문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209명이었으나 불완전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7명이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05, 효과의 중간크기 .25, 검정력 .80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59명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Park 등(2008)이 사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도 조사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자가 현 제도에 맞게 수정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가 2인, 간호학과 교수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연구도구로 최종 활용하였다[8]. 연구도구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도(교육수혜 적정성, 만족도, 취업의도 및 관심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식 11 문항, 태도 6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보건복지계열 4학년 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밀보장 관련 내용을 읽은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한 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반적 관심도, 지식 및 태도는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과 태도 차이는 평균을 구한 후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ANOVA 분석 시 사후분석은 DUNCAN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1>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76.8%)가 남자(23.2%) 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22.3세(표준편차: 1.7세)였다. 종교상태는 무교인 경우가 5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독교(30.7%)이었으며, 경제수준은 중(58.5%), 하(29.8%), 상(11.7%) 순이었다. 대상자의 전공 학과는 사회복지학과(46.4%), 간호학과(31.9%), 치위생학과(21.7%)순이었고, 이들의 주성장지는 중소도시(46.8%)와 대도시(43.9%)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는 53.0%이었고, 현재 평균 동거 가족 수는 3.8명(표준편차: 1.0명)이었다. 대학 재학 중 노인시설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73.4%)가 경험이 없는 경우(26.6%) 보다 많았다.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or Mean)	Percent (or SD)
Gender	Male	48	23.2
	Female	159	76.8
Age		22.3	1.7
Religion	Protestant	63	30.7
	Catholic	12	5.9
	Buddhism	9	4.4
	None	120	58.5
	Other	1	0.5
Economic Status	Low	61	29.8
	Average	120	58.5
	High	24	11.7
Department	Nursing	66	31.9
	Social welfare	96	46.4
	Dental hygiene	45	21.7
Growth Area	Metropolitan	90	43.9
	Small city	96	46.8
	Rural area	19	9.3
Living experience with elders	Yes	107	53.0
	No	95	47.0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3.8	1.0
Experience of volunteer activities for elders	Yes	149	73.4
	No	54	26.6

3.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도

연구대상자는 대학 재학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교육시간에 대해 부족한 편(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 43.6%, 보통 40.8%, 많은 편(많다와 매우 많다) 15.6% 순으로 응답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교육 만족도는 보통이 62.3%였고, 불만족한 편 21.0% 만족한 편 16.7%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취업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편이라는 응답이 약 2/3를 차지하였고, 보통이 31.0%였으며 알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3.9%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 자신의 능력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취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비교했을 때 보통이 절반(51.8%)이었고 부족한 편 42.8%, 충분한 편은 5.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 역시 낮은 편이 50.7%, 보통 39.0%, 높은 편은 10.3%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2>참조.

<Table 2> Education satisfaction and interest in employment related to long-term care(LTC)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Percent
Appropriateness of training time	Very low	12	6.5
	low	69	37.1
	Average	76	40.8
	High	27	14.5
	Very high	2	1.1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LTC	Very unsatisfied	7	3.8
	Unsatisfied	32	17.2
	Middle	116	62.3
	Satisfied	29	15.6
	Very satisfied	2	1.1
Awareness about the LTC field of employment	Very low	31	15.3
	low	101	49.8
	Average	63	31.0
	High	8	3.9
	Very high	0	0.0
My ability to work in LTC	Very low	21	10.6
	low	64	32.2
	Average	103	51.8
	High	10	5.0
	Very high	1	.5
Intention to work in LTC	Yes	78	38.8
	No	123	61.2
Interest in LTC	Very low	30	14.6
	low	74	36.1
	Average	80	39.0
	High	20	9.8
	Very high	1	0.5

3.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식 및 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11개 문항 중 평균 4.7개(표준편차=±2.1, 최소: 0, 최고: 9)

정답률을 보였다.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신청하여 한 번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등급판정조사를 다시 받는 일 없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68.1%),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63.3%),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등급판정조사에서 1~5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63.3%)에서는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8.2%)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만 65세 이후 노인이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16.9%) 항목은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태도에 대해서는 5.3점(표준편차=±0.9, 최소: 1, 최고: 6)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 전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97.6%)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될 것이라 생각한다.’(79.2%)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참조.

<Table 3>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LTC

	Variables	Percent
Knowledge(4° 7±2° 1)	LTC is an insurance system for people who are in need or who support the elderly.	31.9
	LTC is a system to treat dementia or stroke instead of health insurance.	52.7
	In order to use LTC services, you must apply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63.3
	LTC can be beneficial only after they are 65 years old.	16.9
	To qualify for LTC benefits, you must be in grades 1 to 5 of the grading survey.	63.3
	Once you have applied for a LTC and have been identified as a subject, you can continue to receive benefits.	68.1
	The premium for LTC must be paid by anyone who has health insurance.	39.1
	If you are admitted to a LTC hospital, you can not benefit from LTC	8.2
	Anyone can admit to a nursing facility if they are judged to be a LTC recipient.	41.5
	When you become a LTC recipient, you can use the service free of charge regardless of income.	53.6
Attitudes(5° 3±0° 9)	If you are a LTC recipient, you can use in-home care services and facility services at the same time.	26.6
	Elderly support is a national responsibility	87.9
	LTC premiums will be used for LTC	79.2
	LTC is a necessary system for me	81.6
	LTC is a necessary system for my family	92.8
LTC is a necessary system for all citizens	97.6	
I am willing to pay LTC premiums	93.7	

3.4 대상자의 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식 차이

대상자의 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식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는 학생(5.09점)이 종교가 없는 학생(4.33점) 보다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71, p=.011$). 또한, 전공학과에 따른 차이가 있어, 간호학과(5.34점)와 사회복지학과(4.70점)의 경우 치위생학과(3.51점) 보다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1.063, p=.000$). 대학 재학 중 노인시설에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4.87점)도 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3.98점)보다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66, p=.008$) <Table4>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취업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5.87점)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4.25점) 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219, p=.002$).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경우(5.57점)는 낮은 경우(4.16점) 보다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306, p=.002$).

<Table 4> Difference of LTC knowledge by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Mean	t or F	p
Gender	Male	4.79	0.518	.605
	Female	4.61		
Age	<22	4.96	1.605	.110
	≥22	4.46		
Religion	Yes	5.09	2.571	.011
	No	4.33		
Economic Status	Low	4.45	1.233	.294
	Average	4.60		
	High	5.25		
Department	Nursing ^a	5.34	11.063	.000
	Social welfare ^a	4.70		
	Dental hygiene ^b	3.51		
Growth Area	Metropolitan	4.63	1.015	.364
	Small city	4.76		
	Rural area	4.00		
Living experience with elders	Yes	4.71	0.571	.568
	No	4.54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 4	4.64	-0.049	.484
	>4	4.66		
Experience of volunteer activities for elders	Yes	4.87	2.666	.008
	No	3.98		
Appropriateness of training time	Low	4.72	0.017	.983
	Average	4.73		
	High	4.65		
Educational	Unsatisfied	4.56	0.286	.751

experience about LTC	Middle	4.81		
	Satisfied	4.61		
Awareness about the LTC field of employment	Low ^a	4.25	6.219	.002
	Average ^{a,b}	5.22		
	High ^b	5.87		
My ability to work in LTC	Low	4.68	0.115	.892
	Average	4.53		
	High	4.54		
Intention to work in LTC	Yes	4.88	1.247	.214
	No	4.50		
Interest in LTC	Low ^a	4.16	6.306	.002
	Average ^{a,b}	5.03		
	High ^b	5.57		

3.4 대상자의 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태도 차이

대상자 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5.53점)가 동거 경험이 없는 경우(5.08점)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3.416, p=.001$). 또한 노인시설에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5.45점)도 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4.96점) 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2.668, p=.010$) <Table5> 참조.

<Table 5> Difference of LTC attitudes by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Mean	t or F	p
Gender	Male	5.39	0.572	.568
	Female	5.30		
Age	<22	5.40	0.917	.360
	≥22	5.28		
Religion	Yes	5.36	0.518	.605
	No	5.30		
Economic Status	Low	5.45	0.944	.391
	Average	5.26		
	High	5.25		
Department	Nursing ^a	5.34	0.127	.881
	Social welfare ^a	5.34		
	Dental hygiene ^b	5.26		
Growth Area	Metropolitan	5.23	2.261	.107
	Small city	5.45		
	Rural area	5.05		
Living experience with elders	Yes	5.53	3.416	.001
	No	5.08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 4	5.27	-1.532	.127
	>4	5.52		
Experience of volunteer activities for elders	Yes	5.45	2.668	.010
	No	4.96		
Appropriateness of training time	Low	5.28	0.107	.899
	Average	5.30		
	High	5.20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LTC	Unsatisfied	5.17	0.311	.733
	Middle	5.31		
	Satisfied	5.29		
Awareness about the LTC field of employment	Low ^a	5.37	0.779	.460
	Average ^{a,b}	5.22		
	High ^b	5.12		
My ability to work in LTC	Low	5.25	0.476	.622
	Average	5.38		
	High	5.36		
Intention to work in LTC	Yes	5.28	-.378	.706
	No	5.33		
Interest in LTC	Low ^a	5.30	.815	.444
	Average ^{a,b}	5.28		
	High ^b	5.57		

4. 논의

본 연구분석 결과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아 교육만족도와 취업분야에 대한 관심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일본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과 대학 내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교육 시간 부족을 보고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13, 14]. 지금까지 국내 보건복지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교육만족도와 취업 분야 관심도를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역시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 노인장기요양인력인 보건복지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도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 고취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 현장으로의 유입에 충분조건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예비졸업생의 취업 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한 후, 이들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확보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15].

연구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식수준은 낮았고,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시설 서비스와 요양병원 치료서비스 이용간 구분에 대한 인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에 대한 문항은 20% 미만의 낮은 정답률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등 (2008)이 제도 도입 초기 실시한 인식도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이나 자격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더구나 본 연구대상자인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서비스, 자격, 보험료 등 6개 항목에서는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 보다 정답률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학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조차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한 결과이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재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토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복지계열 교육과정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보건복지계열 학과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교육 시간 및 교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연구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도와 지식 수준이 낮은 것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전 국민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의지 항목에서는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이들이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치과의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나 제도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6]. 또한 일반 국민 보다는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으로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사용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8]. 우리나라 보다 앞서 제도를 수행한 독일의 수발보험이나 일본의 개호보험이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인식 공유를 통해 보험료 인상정책 등을 합의하면서 사회보험으로써 제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민 전체는 물론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세대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대상자의 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식수준은 종교, 전공학과, 노인시설 봉사경험, 취업 분야에 대한 인식, 노

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태도는 조부모와 동거 경험과 노인시설 봉사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시설 봉사 경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식과 태도 차이 모두에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정규 교과교육 이외 노인들을 보살피고 상호작용하는 봉사 경험이 노인에 대한 인식, 부양의식과 지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맥락이다[17,18]. 또한,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는 종교, 전공학과, 형제수, 경제수준 및 노인과의 경험 및 접촉빈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19,20]. 한편, 전공과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식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공과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안에 대한 이론 교육 이외 현장전문인력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21,22,23].

이상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일개 대학교 보건복지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대학 내 교과과정 운영 현황 등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대표성 있는 표집방법을 통해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도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인력 중 예비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위생사만을 포함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의사, 치과 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여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 인력을 포함한 연구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 교육만족도 및 취업 관심도 등 일부 한정된 변수만을 포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식과 태도 차이를 분석하였으므로 향후 보다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전반적 인식도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보건복지계열 4학년 2학기가 종료된 시점에 조사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교육 시간 및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 시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반적 인식도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이 사회적 통합 기능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무 현장에서 전문직 종사자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및 취업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노인보건복지제도 및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노인 대상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 지식 및 태도 수준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특성별 지식 및 태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고, 교육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분야의 취업에 대한 인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식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나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종교, 전공학과, 노인시설 봉사 경험, 취업 분야에 대한 인식,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식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부모와 동거 경험과 노인시설 봉사 경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과 함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또한 보건복지계열 대학생들이 교과과정 이외 직접 체험을 통해 제반 노인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점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노인정책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동적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7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REFERENCES

- [1] W. D. Sun, E. N. Kang, Y. K. Lee, H. S. Kim, I. D. Choi, E. J. Han, H. J. Nam, D. M. Seo, S. H. Lee. Performanc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n Long-Term Care Insuran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ublishing, 2016.
- [2] http://www.ombudsm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290&idx=3559
- [3] Y. K. Lee, S. J. Kim,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ong-term care", Health Soc Welfare Rev Vol. 32, Vol. 4, pp. 66-93, 2012.
- [4] E. J. Bang, & S. Y. Yun, "Health needs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using RAI-MDS-FC",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 21, No. 2, pp 263-272, 2010.
- [5] H. S. Kim, I. S. Lee, "The Related factors of job satisfaction in care facilities for the aged", APJBVE, Vol. 8, No. 1, pp 79-87, 2013.
- [6] J. H. Lee, E. J. Park, J. M. Choi, "A study on the knowledges, attitudes and behaviors of some university students about the old", J Korean Soc Dent Hyg, Vol. 11, No. 2, pp 233-242, 2011.
- [7] J. Brown, M. Nolan, S. Davies, J. Nolan, J. Keady, "Transforming students' views of gerontological nursing: realising the potential of 'enriched' environments of learning and care: a multi-method longitudinal study", Int J Nurs Stud, Vol. 45, No. 8, pp. 1214-32, 2008.
- [8] J. Y. Park, J. H. Kwon, J. S. Lee, N. G. Seo, C. G. Gang. A survey on public awareness of long-term car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Publishing, 2008
- [9] Y. H. Park. A study of the old ag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Incheon University. Master thesis. 2009.
- [10] D. J. Kim, M. K. Kim, C. U. Yoo. Y. A. Yang, "A study on the occupational therapists awareness on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J of Korean Assoc Occup Ther Policy for Aged Ind, Vol. 2, No. 1, pp. 51-60, 2010.
- [11] M. Y. Kwo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perceived by visiting nurses. Inha University, Master thesis, 2008
- [12] J. M. Hwang, Y. D. Park. "Dental hygienists' awareness and needs regarding the current Long-term senior care insurance system." J Korean Acad Dent Health, Vol. 33, No. 3, pp. 422-431, 2009.
- [13] K. N. Williams, J. Nowak, R. L. Scobee. "Fostering student interest in geriatric nursing: impact of senior long-term care experiences." Nurs Educ Perspect, Vol. 27, No. 3, pp. 190-193, 2006.
- [14] Y. Miyake, M. Washio, K. Matsuu. "Awareness of the new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social services for elderly care in non-medical junior college students." Fukuoka Igaku Zasshi, Vol 92, No. 10, pp. 347-53, 2001.
- [15] C. Neville, R. Dickie, S. Goetz. "What's stopping a career in gerontological nursing?: literature review." Gerontol Nurs, Vol. 40, No. 1, pp. 18-27, 2014.
- [16] J. M. Seong, S. K. Lee, Y. D. Park. A study on recognition and support of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J Korean Acad Oral Health, Vol. 34, No. 2, pp. 222-229, 2010.
- [17] S. J. Voogt, M. Mickus, O. Santiago, S. E. Herman. "Attitudes, experiences, and interest in geriatrics of first-year allopathic and osteopathic medical students." J Am Geriatr Soc, Vol. 56, No. 2. pp. 339-44. 2008.
- [18] M. J. Choi, C. S. Shim. "The study of awareness and images of the elderly by university students." J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 Assoc, Vol. 8, No. 2, pp. 299-306, 2014.
- [19] Y. G. Choi.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of the aged. Wonkwon University, Master thesis, 2011.

- [20] J. Jackson, A. Clark, L. Pearse, E. A. Miller, H. Stanfield, C. J. Cunningham. "Explaining student interest and confidence in providing care for older adults: the role of demographics and life experiences." J Gerontol Nurs, Vol 43, No. 3, pp. 13-18. 2017.
- [21] K. Nolet, T. Roberts, A. Gilmore-Bykovskiy, R. Roiland, C. Gullickson, B. Ryther, B.J. Bowers. "Preparing tomorrow's nursing home nurses: the wisconsin long term care clinical scholars program." Gerontol Geriatr Educ, Vol. 36, No. 4, pp. 396-415, 2015.
- [22] A. Lathia, M. Rothberg, M. Heflin, K. Nottingham, B. Messinger-Rapport. "Effect of a novel interdisciplinary teaching program in the care-continuum on medical student knowledge and self-efficacy." J Am Med Dir Assoc, Vol. 16, No. 10, pp. 848-854, 2015.
- [23] B. E. Barba, P. Gendler. "Education/community collaborations for undergraduate nursing gerontological clinical experiences." J Prof Nurs, Vol 22, No. 2, pp. 107-111, 2006.

저자소개

황 라 일(Hwang Rah Il)

[정회원]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4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0년 9월~2014년 2월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2014년 3월~현재 :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공공보건사업, 노인장기요양